

강진군, 농업용 드론 지원 스마트 농업시대 이끈다

농촌 노동력 부족·고령화 대응책 각광...28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강진군은 대규모 벼 및 밭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을 지원한다. 농업용 드론은 벼 직파, 비료와 제초제 살포 등 손이 많이 가는 분야에 농촌 노동력을 절감하고, 적기 공동방제로 고품질 쌀 수확이 가능하다. 특히, 1ha 면적의 논을 10분 만에 방제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지원사업

을 추진해 지금까지 무인헬기 4대, 드론 24대 등 총 28대의 농업용 드론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용 드론 4대를 지원한다. 드론 1대당 단가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 원이다. 지금까지 2대가 공급되었으며, 나머지 2대는 오는 28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송승연 친환경농업과장은 "드론

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여,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문제의 해소 및 생산비 절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농업용 드론 외에도 올해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311대, 소형농기계 356대, 중대형농기계 69대, 여성친화형 전기운반차 41대, 곡물건조기 집진기 50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군 역대 최대 규모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

해남군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올해 관내 6개지구, 3,03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국비 5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 추가 공모를 통해 해남읍 평남지구 24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선정, 국비 5,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평남지구는 해남읍 평동리, 고도리 일대로서, 해남읍 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100년 넘는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있는 지역을 다시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토지소유자 비용부담 없이 측량을 진행하며, 건물의 지적선 저축을 해소하고, 출입로가 없는 맹지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사업효과가 있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음식점·학교·병원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시행

9월까지 100여개소 인증 목표

진도군이 관내 음식점, 외식업소,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체 등을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군은 값싼 수입산 김치를 국산 김치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을 막고, 세계 최고 품질인 전남산 김치의 소비를 장려할 계획이다.

군은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100여개소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 신청은 진도군 경제마케팅과와 읍·면사무소로 국산김치 공급·판

매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입내역이 기재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는 신청서를 토대로 심의해 인증마크를 교부하며, 인증 기간은 1년이다.

해마다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인증 받은 곳은 인증 마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에도 청정 진도군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배추와 각종 재료로 만든 김치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김치 소비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5월 장흥 힐링 먹거리 '바지락·키조개'

2017년 전국 최초 장흥 청정해역 갯벌 생태 산업특구 지정



장흥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5-6월 힐링 먹거리를 소개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먹거리는 바지락이다. 바지락은 진판새목 백합과에 속하는 작은 바닷조개이다.

바지락은 호미로 갯벌을 긁을 때 부딪히는 소리가 '바지락 바지락'처럼 들린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바지락은 흔한 조개이지만 1년 내내 수확할 수는 없다. 주 산란기인 7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독이 있어 채집하지 않는다.

바지락은 여러 가지 요리를 위한 식재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육질 100g에 칼슘과 계란의 5배나 되는 마그네슘이 들어 있다. 또한 생체 방어에 필요한 효소와 효소 생산에 필요한 구리도 130mg이나 함유되어 있다.

특히 바지락은 미량원소로서 무기질 함량이 매우 높아 대사 조절작용으로 병후 원기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바지락 조개가루를 항집주머니에 넣고 달여서 차 마시듯

하면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해 주는 등 인체에 감습을 보충해 준다.

작고 흔한 조개이지만 살뿐 아니라 껍데기까지 사람에게 많은 이로운 점을 준다.

요리용으로 바지락을 고를 때는 살아 있는 것을 골라야 한다. 입이 굳게 닫혀 있어 속이 보이지 않고, 껍데기가 깨지지 않고 윤기가 있는 것이 좋다. 채취한지 오래 된 것은 딱한 갈색으로 변하므로 껍데기를 잘 살펴보면 된다.

바지락은 갯벌 속에 살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빨이나 모래 등 이물질이 들어있어 이를 제거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해감이라 하는데 살아 있는 바지락을 맑은 바닷물이나 소금물이 담긴 용기 속에 30분 이상 담가 두면 입을 벌리고 이물질을 뱉어 낸다.

생바지락은 100g당 총 열량이 60cal 이고, 그 조성은 수분 84.2%, 단백질 9.1%, 지방 0.8%, 탄수화물 4.0%, 회분 1.9%이며, 비타민 A·비타민 B1·비

타민 B2·비타민 C·니코틴산 등을 함유하고 있다.

정남진 장흥 바지락 회무침은 채 썬 애호박과 당근, 어슷하게 썬 오이, 데친 미나리, 쪽파를 초고추장으로 무친 다음, 데친 바지락살과 막걸리식초를 넣고 버무려서 감칠맛을 더한다.

바지락 못지않은 명성으로 장흥을 대표하는 두 번째 먹거리가 있다. 바로 장흥 키조개이다. 껍데기의 폭이 좁고, 아래로 점점 넓어지는 삼각형 모양이 마치 곡식 따위를 가부르는 '키'를 닮았다 하여 키조개라는 이름이 붙었다.

특량만 키조개는 5월이 되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다. 전국 최초 청정해역 특구로 지정된 특량만(125247㎡)에서 건져 올린 키조개는 큼직한 속살 만큼 맛과 영양도 뛰어나다. 장흥 키조개의 주산지인 안양면 앞 바다는 다양한 미생물과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껍질과 모래가 섞여 있어 키조개 생육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키조개는 그 자체로도 맛깔스럽지만, 한우삼합, 전, 탕수육, 회 무침, 죽 등 다양한 요리와도 궁합이 좋다.

사브사브, 꼬치, 구이, 무침, 회, 초밥, 전, 죽, 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되며, 특히 후회각근을 조개관자(貝柱)라 하여 사람들이로부터 많은 선호를 받고 있다. 5월에 채취된 키조개가 가장 맛이 뛰어나다고 한다.

정남진 장흥 일대에서 생산되는 키조개는 대부분 염건(鹽乾)하거나 냉동하여 높은 가격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단백질이 많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이 많아 동맥경화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다.

직접 잡수하여 채취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산란기에는 채취를 금하고 있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군의원, 여서도 찾아 민생 현장 살펴

주민 불편사항 파악

완도군의원(허궁희 의장) 의원들이 '가고 싶은 섬' 여서도를 찾아 민생 현장을 살폈다.

군의회에 따르면 허궁희 의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은 지난 18일 여서도를 찾아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는 민생 현장 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서도항에 도착한 의원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현장으로 이동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여서도는 완도항에서 약 40km 지점에 있어, 여객선으로 3시간이 소요되며 현재는 54가구 87명이 거주하고 있는 외딴섬이다.

여서도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마을 안쪽을 관통하며 빗물과 하수가 흐르는 하천이 붕괴할 위험이 있어 정비하여 줄 것과 마을 안길 확장 사업을 건의했다.

허궁희 의장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



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조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완료되면 체류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 올 것에 대비하여 주민들이 방문소 관리 등 마을 주변 환경 개선을 철저히 실현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